남도 10월은 축제의 계절

내달 2일 곡성 '심청축제'로 시작… '영산강문화축제' 등 23개 잇따라

"남도 음식과 문화, 단풍으로 가을 관광객을 유혹한다"

전남지역에서는 오는 10월 2일 곡성 심청축제를 시작으로 2008명량대첩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순천만갈대축제, 나주 영산강문화축제, 화순 풍류문화 큰잔치, 장성 백양단풍축제 등 국내외에 알려진 유명 축제와 지역 단위 크고 작은 23개의 축제가 10월 한 달 동안 열린다.

지자체 주관의 행사에서 전남도가 주관하는 행사로 바뀐 '2008 명량대첩축제'는 올 가을 축제의 백미로 꼽힌다.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 일원과 진도군 녹진 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는 명량대첩축제는 세계 해전사상 유래가 없는 대전승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면에서도 그동안 전국적으로 난립해 온 이순신 관련 축제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순천만갈대축제'(10월 28일~11월 4일)는 8일간 순천시 순천만 일원에서 펼쳐지며, 조류 관찰장·생태연못·전망대·갯벌체험 등 생태체험을 할 수 있다.

유료로 갈대밭 자전거투어, 선상투어, 흑두루미 열차체험, 야외 별자리체험도 할 수 있다. 순천만의 갯벌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붉은 해를 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다.

대한민국 우수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자연에서 찾은 어머니 손맛! 남도생활이야기'이라는 주제로 순천시 낙안면 낙안읍성민속마을에서 열린다.

남도음식 22개 시·군 명인음식관과 발효식품 생태환경관·남도민속주관·남도음식역사관·남도차와 그릇관 등 다양한 음식전시와 음식 기네스도전, 음식 달인 열전, 음식체험마당, 22개 시·군 명인음식 특별장터, 남도 음식대전, 다문화가정 남도음식대전, 푸드스타일링 열전 등 경연이 펼쳐진다.

'나주 영산강문화축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나주시 금성관 주변에서 '영산강, 내 안에 흐르는 역사의 힘!' 이라는 주제와 '나주로 떠나는 2천년의 시간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마한 소도제와 나주 목사 부임행차, 우리말 퀴즈대회, 나대용 거북선 창작모형경진대회, 혜종 어가타기, 말 마차 및 말 타기, 팔도성씨 박람회, 천연염색 패션쇼, 농경문화 종합전시 및 체험 등 나주 역사문화, 전통문화, 농경문화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보성군 보성체육공원에서 '신마당놀이 보성놀부전 서편제의 원류를 찾아서'란 주제로 열린다.

서편제 판소리경연대회, 전국고수경연대회, 서편제 보성소리학술심포지엄, 관광객 판소리 체험, 어린이 판소리교실과 창극, 청소년 국악발표회 등 다양한 소리경연과 체험이 열리고 보성 녹차도 시음할 수 있다.

이밖에 목포바다 은빛갈치축제, 동명동 종합수산물축제, 광양전어축제, 염산 수산물 소금 젓갈축제, 천관산 억새제,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보성전어축제, 영암 왕인 국화축제, 벌교 꼬막축제 등이 열린다.

명창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축제를 놓치지 않고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남도 홈페이지 관광포털사이트(www.namdokorea.com)나 각 시·군 홈페이지의 각 축제 프로그램별 진행일자와 장소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도 10월 주요 축제

축 제	개최시기	개최장소	문의(061)
보성전어축제	9.27~28	회천면 해수풀장	852-8535
곡성심청축제	10.2~5	섬진강 기차마을	360-8246
목포바다은빛갈치축제	10.3~4	목포 평화광장	270-8443
광양전어축제	10.3~5	진월면 망덕포구	797-2606
수산물소금젓갈축제	10.3~5	영광 염산면 설도항	350-5961
천관산억새제	10.5	천관산 정상	860-0224
남도음식문화큰잔치	10.9~13	순천낙안읍성	749-8111
명량대첩축제	10.11~14	울돌목 일원	530-5919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10.10~12	광양읍 서천공원	797-2601
신안홍어축제	10.11~12	흑산도	275-9300
풍류문화큰잔치	10.16~19	화순 공설운동장	379-3501
영산강문화축제	10.24~26	나주 금성관	830-8224
보성소리축제	10.25~26	보성소리전수관	850-5223
순천만갈대축제	10.28~11.4	순천만자연생태공원	749-4266
영암왕인국화축제	10.29~11.16	영암왕인박사유적지	470-2251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9~11.23	함평 자연생태공원	320-3364
피아골단풍축제	10.31~11.2	구례 토지면	780-2227

일출·야경 보러 오세요

완도군 산책로 갖춘 '일출공원' … 동망산 정상엔 관광타워도

완도의 환상적인 일출과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탄생했다.

완도군은 사업비 154억원을 투입해 완도읍 동망산 정상 부근 5만3천여㎡에 관광 타워와 광장, 산책로, 쉼터 등을 갖춘 '일출공원'을 완공, 지난 11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종식 완도군수, 차용우 군의회 의장, 정광록 완도경찰서장, 김두석 완도해경서장,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06년 5월 착공해 2년3개월만에 완공한 일출공원에 건설된 76m 높이의 완도 타워에는 영상 모니터와 전망 쌍안경이 설치돼 다도해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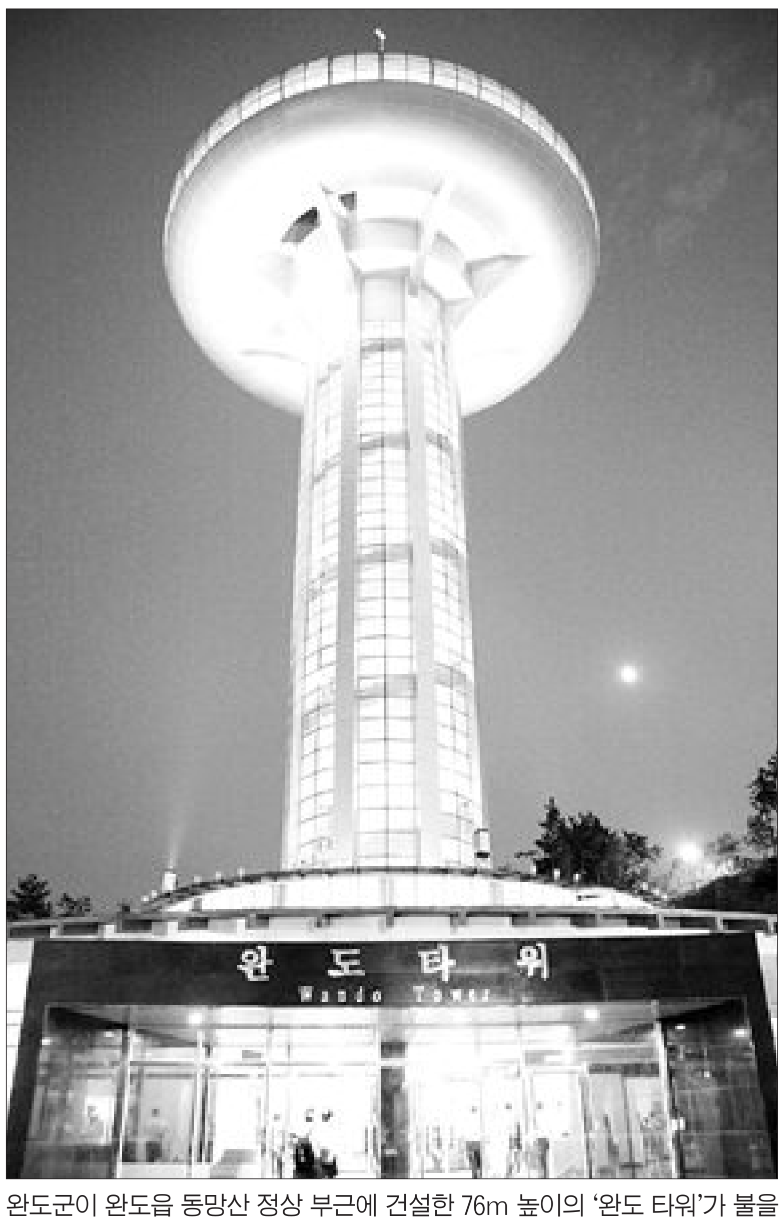
특히 타워 외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타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매일 저녁 음악과 함께 환상적인 레이저쇼도 펼쳐진다.

타워 1·2층에는 특산품 전시장, 크로마키 포토존, 휴게 음식점 겸 매점과 영상시설, 이미지 벤치 포토존 등이 마련됐다.

또 미소정원, 꽃비가든, 바다정원 등 작은 테마로 구성된 중앙 광장에는 각종 야생화를 심었고 다양한 높이의 파이프 조형물 등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다도해 일출공원은 관광객들에게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게 할 것이다"며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지역 관광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완도군이 완도읍 동망산 정상 부근에 건설한 76m 높이의 '완도 타워'가 불을 밝혔다. 완도 타워는 환상적인 일출과 일몰은 물론 완도항과 신지대교 등 야경을 365일 감상할 수 있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장성군, 벼 재배농가 직접 지원

'경영안정 대책비' 5억5천만원 확보 개별농가에 지급키로

장성군이 최근 논란이 됐던 '경영안정대책비' 5억5천만원을 벼 재배농가에 직접 지불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미 집행됐던 2007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와 최근 추가로 확보한 국·도비 2억7천500만원을 더해 5억5천만원을 벼 농가에 직접 나눠주기로 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위해 전남지역 기초 자치단체가 국비와 도비에 군비를 더해 개별 농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장성군은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경영안정대책비를 개별 농가에 지급하는 대신 '연합RPC'의 DSC(벼 저장 및 건조 시설) 건설자금으로 사용해오다 장성군의회 및 일부 농민단체와 마찰을 빚어왔다.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 5개년 계획은 329억원을 투입해 장성군 전체 쌀 생산량 3만7천t의 50%에 해당하는 1만8천t을 건조·저장할 수 있는 DSC 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3천ha의 계약재배를 유도하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연합RPC가 완공되면 획기적인 일손 덜기와 영농비 절감을 가져 올 것"이라며 "최근 농자재 값 급등으로 인한 농가의 고통을 덜기위해 농가에 직접 지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장성 '하늘바라기 공원' 문 열어

장성군 북이면에 '하늘바라기 공원'이 문을 열었다. 〈사진〉

하늘바라기 공원은 장성군 북이면이 개천변 유휴지를 활용해 만든 테마공원으로 북이면 조양리 모현교에서 신월리 상공마을까지 3㎞에 걸쳐 조성됐다.

9천㎡에 코스모스 단지와 액운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장승 및 솟대가 설치돼 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함평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나선다

TF팀 구성…우량 암소 육성 사업 등 시행

함평군이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함평군은 지식경제부 주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함평 천지한우' T/F팀을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함평군은 지난해 나비산업 특구에 이어 함평천지 한우산업 특구 지정에 따라 곤충산업 및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양대 축(軸) 형성에 나섰다.

함평군은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오는 2012년까지 6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함평천지 한우 산업특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올해부터 ▲우량 암소핵군(우량밑소) 육성 ▲명품 브랜드화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 ▲이벤트 및 관광개발 등 5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함평천지 한우'의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내년까지 함평읍 내교리 일원에 친환경 한우촌 조성과 함께 홍보관 및 먹거리 장터를 먼저 개설할 방침이다.

이석형 군수는 "쇠고기 수입 자유화에 대처하기 위해 고급육 생산 및 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해 '함평천지 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농가소득 증대 기여 및 관광산업과 한우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